

제429회 국회  
(정기회)

##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6일(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                                       |       |    |
|---------------------------------------|-------|----|
|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 ..... | 4  |
| 2. 간사 선임의 건                           | ..... | 10 |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 제사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22일에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건가요?

○김용민 위원 따로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1항에 대한 겁니까, 1·2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의사진행 발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추미애 제가 오늘 의제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 시에 하시겠다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추미애 예,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오늘 그동안 미뤄 왔던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간사 선임을 우리 당에서는 분명히 나경원 위원을 추천을 했고 이미 다 간사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표결에 부쳐 가지고 마치 나경원 위원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오늘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위원이 간사

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라는 그리고 사법부 재판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원리가, 헌법 원칙이 지금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있고 간접 선출된 권력이 있다고 하면서 간접 선출된 권력인 사법부는 직접 선출된 입법권력의 밑에 있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요? 헌법을 공부하시고 또 법정에 서셨던, 판사 역할을 하셨던 추미애 위원장님, 이것은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대,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와 함께 삼권분립, 동등한 견제와 균형을 할 같은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접 선출된 권력도 국민들에게는 아래에 있다’. 그러면 국민들을 보셔야지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만 보고 착각을 하신다면……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지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배라고 하면 바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민심을 거부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이러한 폭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간사 반드시 선임해 주실 것을 동료 여당 위원님들께 당연한 것이면서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이 1호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당에서 추천한 증인·참고인들이 10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왜 하나도 안 넣은 겁니까? 오늘 저는 이분들이 간사 선임 안건도 올리고 또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안건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 정말 대단하구나, 민주당이 변했구나’ 그래서 아침에 혹시 하면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와 보니까 역시 이 1호 안건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1명도 없고 오히려 여당에서 그동안에 공부를 덜해서 그런가 빠뜨렸던 세 분을 선임하는 안을 또다시 올렸어요.

○서영교 위원 다 야당 추천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 제발 이러지 맙시다.

○서영교 위원 광규택·나경원 추천인데 무슨 엉뚱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3명, 나경원·광규택 추천.

○송석준 위원 우리 국민들께서 냉정히 보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결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송석준 추천도 있구먼.

○송석준 위원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민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거짓말! 여기 송석준 추천 있구먼.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 엄청난 역풍에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겁니다.

○서영교 위원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곽규택·나경원·송석준 추천, 이 3명이잖아요.

○신동욱 위원 앞에 전부 다 민주당만 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자,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간사 추천은 나경원 위원으로 했다고.

.....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실 건가요?

○서영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한 정청래 당대표 발언을 향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노상원 등 불법 비상계엄 조직에 의해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처음 오신 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법사위원장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청문회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숨져 죽어 간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저희가 청문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하게 투쟁해 와 끝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김건희는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서영교 위원 이 법사위에서.....

○곽규택 위원 왜 우리한테는 내용 가지고 문제 삼으시고 저쪽에서 저런 식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냥 두십니까?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맞지요.

○위원장 추미애 발언 도중에 끼어들려면 위원장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저쪽에서 끼어들 때는 왜 가만히 계세요?

○송석준 위원 이쪽 보고 하지 말고 저쪽 보고 하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협조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건진 은신처에서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다발을 해체하고 증거를 숨겼어요. 이 자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자는데 그것 안 된다고 방해하는 게 맞습니까? 건진 은신처에서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비닐에 뜰뜰 말아 가지고 증거로 왔는데, 사무규칙 11조, 4조에 ‘원형보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원

형보존이 아니라 해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검찰이 감옥 간 윤석열을 또 돌보고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입법청문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쪽에서 증인·참고인 더 요청해서 증인·참고인 더 넣자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나경원·곽규택·송석준 추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송언석의 발언 그리고 나경원 위원의 발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전부 다 확실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어게인을 외친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단호하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더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만 더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발언을 하셔서.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 각각 한 명씩 하자라는 것 우리가 합의된 게 없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더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안건 처리하시지요. 안건 처리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 안건도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 추미애 토론의 기회에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토론으로 들어가시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고 토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2일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변민선·노정웅을, 참고인으로 양홍석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증인 신의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증인 채택은 국힘에서는 모두 45명을 신청했었으나 지난 기일에 3명밖에 채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을 추가로 채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봤자 저희는 45명 중에서 6명이 채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채택률 6% 대 100%, 위원회의 운

영이 심각하게 편향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문회를 빙자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속내를 거침없이 내놓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서 편향됐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이 요청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졌고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사람들은 일부만 수용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된 분들도 상당 부분 걸러졌고 채택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각 의원실별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번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됐던 관봉권 떠지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종합 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봉권 떠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특히 그날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 나가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관봉권 떠지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도 못 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관봉권 떠지 사건에 집중해서 심도 깊게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면 증인과 참고인은 관봉권 떠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45명 신청했다는 분들 보면 관봉권 떠지와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저희가 안건 처리하는 분들이 관봉권 떠지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참고인 역시 관봉권 떠지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부작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이런 정도를 저희가 수용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입법청문회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 과정들을 다 들어엎고 갑자기 오늘 이제 와서 편향적이다라고 얘기 하실 것은 전혀 아니다, 앞뒤가 다른 얘기だ라고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제가 웬만하면 발언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민주당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계속 주장한 첫 번째, 간사가 없어서 당신들 협의할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 늘 하시고 두 번째, 우르르 나가서 논의를 못 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전제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지요.

왜 간사가 없습니까? 간사를 선임을 안 해 주니까 없는 거지요. 그래 놓고서는 간사가 없어서 협의 못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르르 나간다, 우르르 나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좋습니다. 왜 우르르 나갑니까, 저희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저희들에게 무슨 기회를 안 주니까 저희도 더 이상 항의할 길이 없을 때 우르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매번 여당 간사께서 저

희가 나가서 우리끼리 다 얘기했다 그리고 나중에 폭넓은 논의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자꾸 말씀하시는게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문제 제기를 수용해 드려도 그래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송언석 저희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2찍들 한꺼번에 한낱한시에 모아서 다 묻어 버리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한낱한시에 절반의 주권자를 모아서 묻어 버리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원내대표하고 교육연수원장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박규택 위원 징계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동욱 위원 이거는 징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발언한 자체가…… 이게 징계의 문제입니까?

○박규택 위원 저기는 징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위원 징계해야지요.

○신동욱 위원 그래서요 이런 발언,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 묻어 버린다는 이런 정당이, 무슨 원내대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바르르 띱니까? 그것도 국회본회의 중에 혼잣말한 거……

○서영교 위원 그래서 잘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혼잣말한 거를 CCTV 돌려서 찾아내요?

○서영교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뭔 말이 더 많아.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대한민국 5000만 절반 묻어 버리는 거 잘한 거예요?

○박은정 위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신동욱 위원 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 절반 묻어 버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하시라고요.

○박지원 위원 그건 징계하고 있잖아요.

○신동욱 위원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박은정 위원 송언석 본인이 사과하시라고요.

○곽규택 위원 끼어드는 것 빨리 제지하세요. 박은정·서영교 위원은 제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왜 제가 발언만 하면 이렇게 떠듭니까, 항상.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다가 재판이 정지가 됐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법원이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입법부 법사위의 대표이신 법사위원장님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박지원 위원 잘하지요.

○서영교 위원 물러나야지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잘한다고요?

○서영교 위원 물러나야 해요.

○신동욱 위원 그리고 헌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이상한 무슨 재판부 만들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 해서……

○서영교 위원 헌법에 없으니까 법률로 하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 좀 끼어들지 마세요.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 해서 재판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민주당이 법사위 이렇게 운영해, 입법부가 선출 권력이 마음대로 사법부 수장 내려가라 올라가라, 맞습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대법원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분명히 보장하지요. 이게 전제·봉건 국가입니까? 원님이 1년 때리면 1년이고 2년 때리면 2년이고 원님이 재판관 다 임명해요? 이게 잘하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의 티끌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눈앞의 들보를 좀 보세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맞습니까?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치 행정부가 수권법 만들어서,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출된 권력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선출된 권력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럼니까? 입법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슨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무슨 내란재판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인 이거 맨날 국민의힘 중인도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중인 명단 다 공개해 보세요. 전부 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인 아닙니까? 그리고 두 세 명 이렇게 슬쩍 끼워 주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도 넣어 줬다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묻어 버리자면서요, 2쪽들은.

○박균택 위원 그 사람은 징계받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징계하세요, 송언석 대표도.

○전현희 위원 원내대표랑 같습니까, 그게?

○신동욱 위원 2500만을 묻어 버리자고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어 가지고 징계를 하라 그래요.

○전현희 위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한 발언이랑 같아요?

○서영교 위원 어디 가요? 얘기 들어요.

○신동욱 위원 가든 말든, 남이야.

.....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신동욱 위원님 왜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강욱 교육원장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송언석 원내 대표도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막말을 국회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사퇴도 안 하고 본인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걸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뭐니까? 그러면 지금 상대편에 앉아 있는 이 국회의원들 다 내란의 밤에 그냥 끌려가 가지고 죽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이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탄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대통령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신속 재판 운운하면서 9일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요 그 판결조차도 전원합의체에 올린지 이틀 만에 7만 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7만 쪽을 제가 로그기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아직도 안 내놓고 있거든요. 대법관들이 7만 쪽 기록을 다 보고 재판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하는 건지, 내 재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선 이후에 혹은 그 당시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고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내란 종식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로써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파기시킵니까?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왜 대통령후보를 바꾸려고 했습니까.

지귀연 판사 형사소송법 명백히 위반했는데, 저기 앉아 계신 검찰 출신 위원님들 검사 당시에 구속 기간을 날로 다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명백히 법을 다 위반한 판사를 왜 징계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퇴해야지 이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법원장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본인이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당시에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 막 소집해 가지고 정치 선동,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옹호하고 탄핵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반성을 하셔야지요, 사과도 하시고. 그런데 어디 간사를 한다고 나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머리 조아리시더니 이제 와서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조희대에게 왜 머리를 조아립니까? 조희대가 선출된 권력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송석준 위원님,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한대요. 어떻게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합니

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송석준 위원** 국민들이 엄명을 해서 헌정질서를 만든 거예요. 헌정질서를 지키는 곳이 사법부고.

○**박은정 위원** 대법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법원이고요. 민심을 따르는 것이 대법원이 아니고요 대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의 재판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민심이 사법 질서를 만든 거예요. 공부를 똑바로 좀 하세요!

○**박은정 위원** 왜 대법원의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조희대를 비호하고 옹호하십니까?

○**송석준 위원** 사법 질서를 입법부가 만든 겁니까, 국민이 만든 거지. 그걸 왜 입법부가 깨려고 그래!

○**박은정 위원** 조희대 좋으세요? 조희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송석준 위원** 누가 조아려요?

○**박준태 위원** 본인 할 말만 해요, 본인 할 말만!

○**박은정 위원**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에게 조아리시더니……

○**박준태 위원** 누가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

○**송석준 위원** 누가 조아립니까?

○**박은정 위원** 대법원장을 비호하시는, 저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법원장을 비호하십니까?

○**박준태 위원** 박은정 위원님, 자꾸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 하실 거예요? 본인 주장만 하세요, 본인 주장만!

○**송석준 위원** 아니, 사법고시 하신 분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천박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헌법을 보세요, 헌법. 헌법 공부하세요, 헌법.

○**송석준 위원** 박은정 위원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엄청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헌법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송석준 위원** 천박해요, 천박해.

○**위원장 추미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이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 전통이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의회 전통을 깨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비교섭단체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하여간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곽규택 위원 ‘이런 사람’이라니. 말조심해! 말조심해!

○신동욱 위원 제지해 주세요, 발언 제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곽규택 위원 ‘이런 사람’이 뭐야, 지금!

○박준태 위원 신상모독성 발언 이것 중지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 어제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 일말의 반성이 없어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런 발언은 제지하셔야 돼요. 같은 동료 위원한테 ‘이런 사람’이 뭡니까?

○최혁진 위원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검찰이 몇 년 구형하겠는가?’ 최소 5년 이상 구형한다고 합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저지시켜 주세요. 발언 중단시켜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것 보세요. 이런 것 제지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최혁진 위원 나경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뒤를 봐주고 2년 구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회의 간사가 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제지시켜야지요!

○최혁진 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청탁했지요, 사법 청탁. 일반 시민들이 전화라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성이 없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손현보 목사 교회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것이 종교탄압이라고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왜 종교탄압입니까?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짜? 저런 발언들을 다 그냥 허용한다고요? 법사위가 뭐 저주하러 오는 자리입니까?

○**최혁진 위원** 국민의힘은 지금 법 위에, 헌법 위에 서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경원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신동욱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이 되고 있다고요? 누가 나치당입니까, 누가? 검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하고 헬기를 앉히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어디서 나치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니 나치당의 흉내라고요? 왜 국민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대한 수호의 의지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당일 날, 내란 계엄이 터진 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국회를 방어하고 목숨 걸고 성명을 내야지요. 다 몸 사리고, 절시 물에 코를 처박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 최혁진 위원은 그날 어디 있었어요!

○**최혁진 위원** 국민들은 그런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날 어디 있었냐고, 최혁진 위원!

○**최혁진 위원**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내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입니까, 본인들이 나치당이지. 반성하세요!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천 개의 영현백을 만들었는데 수천 명이 무덤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 원내대표에 대해서 징계도 파면도 못 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을 대의합니까? 당장 모두 사퇴하는 게 맞아요.

조희대 대법관, 자기가 먼저 사직해야 됩니다. 대법관들 전체 사임서 써야 돼요. 여기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4년에 한 번 국민에게 심판이라도 받지요. 한 번 법관이 되면 평생 법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왜 재판부를 못 믿겠어요? 나경원이니까 6년씩이나 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를, 그 검찰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나경원 위원** ‘이런 인간’이? 징계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아니, ‘이런 인간’이 지금 무슨 말이야!

○**최혁진 위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경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아니, 어디가 ‘이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그냥 두시니까 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최혁진 위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한테 파렴치하니 뭐니 얘기한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야!
- 박지원 위원** 앉아, 앉아.
- 최혁진 위원** 누가 ‘야’예요, 누가?
- 곽규택 위원** 일어나 봐!
- 김용민 위원** 반말하지 맙시다!
- 곽규택 위원**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 최혁진 위원**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 신동욱 위원** 욕해 놓고 반말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욕을 하고 반말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주고 경고를 넘어서 퇴장시켜 주세요!
- 나경원 위원** 경고해 주십시오!
- 박준태 위원** 당장 사과시키세요, 위원장님.
- 나경원 위원** 사과시켜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료 위원……
- 전현희 위원** 송석준 위원님은 사과하세요!
- 신동욱 위원** 뭘 사과를 해요?
- 전현희 위원** 천박하다 한 발언 사과하세요!
- 박은정 위원** 저한테 천박하다고 한 것 사과하세요. 어디가 천박합니까, 어느 지점이요? 어느 지점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 김용민 위원** 먼저 사과하세요! 민주당에게 나치라고 한 사람, 그것부터 사과해야지!
- 곽규택 위원** 나치지, 그러면 아니야?
- 김용민 위원** 무슨 민주당이 나치 정당이야. 내란 정당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 송석준 위원** 아니, 김용민 간사님……
- 김용민 위원** 어디서 함부로 나치니 뭐니 하고 있어, 내란 정당 주제에! 사과해야지요, 내란 정당이 사과하시라고!
- 송석준 위원** 아니, 동료 위원한테 ‘인간’이라는……
- 김용민 위원** 아직 국민들한테 제대로 한 번도 사과 못 한 그 내란 정당이 사과부터 해야지요! 누구한테 사과하라 마라 합니까?
- (장내 소란)
- 나경원 위원** 헌법 파괴 정당! 의회 독재 정당! 사과시키세요.
- 박은정 위원** 아니, 사과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 송석준 위원** 뭐를 사과해요?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정 위원** 어느 지점이 천박합니까? 천박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 송석준 위원** 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천박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런 인간’이라는 말을 한 최혁진 위원부터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은정 위원** 막말하시면 됩니까?
- 송석준 위원** 그게 어떻게 막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누가 막말했는데!
- 박은정 위원**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 곽규택 위원** 누가 막말했어!
- 박은정 위원** 저한테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천박해 보이니까 천박하다고 그러지.
-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박은정 위원** 왜 천박하다고 합니까, 저한테?
- 송석준 위원** 천박해 보이니까 그랬잖아요.
- 박은정 위원** 어느 지점이 천박합니까?
- 곽규택 위원** ‘이런 인간’이라고 말한 사람부터 사과시키세요!
- 박은정 위원** 어느 지점이 천박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의가 이렇게 되는 거지!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정 개인을 두고 전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평평을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이게 위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준비까지 해 오셨어요?

○**박균택 위원** 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나경원 위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페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페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고.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 나경원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박준태 위원** 확인된 내용이에요, 박균택 위원님?
- 박균택 위원** 예, 확인이 됐습니다.
- 박준태 위원** 확인이 어떻게 됐어요?
- 나경원 위원** 무슨 확인이 됐어요? 다 허위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 박균택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 박준태 위원**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하세요. 뭘 나중에 얘기해요?
- 박균택 위원** 그리고 자위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나베’니 ‘나까소녀’니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깊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힘의 조직문화가 그런 것 같고……

- 곽규택 위원** 깊이 다뤄 보세요, 어디. 허위 사실이니까 깊이 다룰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박균택 위원** 또 단순한 이기심의 발로거나 또 역사에 무지했기 때문이거나 오래된 일이라서 이것은 저는 묻어 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 그 극우 수구세력들 앞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파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을, 헌법 규정을 어기고 있고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현재형 범죄입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이 아무리 관행도 좋지만 상대 당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 주진우 위원** 간사 선임으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힘자랑하고 있고 국회까지 독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 김용민 위원**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왜 제 말을 끊습니까?

-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발언을 하는데 왜 박균택 위원님은 제지를 안 하세요?

- 김용민 위원** 토론이 아니잖아요.

○주진우 위원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너무 심해요, 수준이.

박균택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벼젓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금 법사위에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이해충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균택 위원 이분 것은 무죄입니다. 잘못된 기소예요! 정치 보복이에요, 그건!

○김용민 위원 우리가 내란을 저질렀냐고요, 우리가 내란 저질렀어요?

○박균택 위원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지.

○주진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 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평가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박균택 위원 표적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박은정 위원 본인은 채 해병 특검 수사나 받아요, 주진우 위원! 채 해병 특검 수사나 받으라고.

○주진우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됩니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함도 부르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모욕 주고 대놓고 사퇴 압박하고 탄핵 협박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의 수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헌법을 망가뜨리는 일이고요.

이제는 심지어 어이없게도 ‘법관은 왜 투표로 뽑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것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법사위에 와 가지고 고함만 고래고래 지르면 본인이 뭐라도 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패스트트랙 사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뭘 했습니까? 공수처 만들고 비례형 연동제 만든 거예요, 단독으로. 공수처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실적 냈습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수사 관련해서 단 하나의 실적도 없고 이때까지 세금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 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패스트트랙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왜 그게 간사 선임이 안 되는 사유가 됩니까?

당시에 빠루를 들고 문을 뜯어낸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경원 간사가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아니, 면책특권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여기서 막 얘기해도 되나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나가서 좀 얘기해 보라는 거고요.

그때 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찬대 의원이 그 당시에 직접 빠루를……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고 했던 증거 사진이 있는데 벼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간사 선임 오늘 반드시 하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저도 오늘 나경원 위원의 간사 선임의 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에 대

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같이 법사위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란을 실패한 것이지, 기수범이었지 미수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음모 과정에서 비상계엄 계획이 발각돼서 저희 국회가 막은 것이 아니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로 진주시키면서 국회가 겨우겨우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해서 막아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그 대표적 인사가 사실 나경원 위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나경원 위원님 부군께서는 법원장 아니시겠습니까, 현직?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부부 법치국가도 아니고, 남편은 법원장이고 부인은 법사위 간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더욱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곽규택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어찌 되었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고 방조하고 사실상 공범으로까지 보여지는 분이……

○곽규택 위원 그러면 남편이 변호사 하는 사람은 법사위원 해도 됩니까?

○장경태 위원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어찌 되었건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성하고, 반성하고 그런데도……

○곽규택 위원 매 때리세요. 매 때리세요. 때려 보세요.

○장경태 위원 국민이 매를 때리실 거예요. 곽규택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3년 뒤에 못 볼 것 같아요, 이 국회에서. 그래서 안타깝고요.

어찌 됐건 저렇게 하신 분들이 다……

○곽규택 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장 위원님.

○장경태 위원 공천 자신 있다고, 부산 서구동구에서 자신 있어 하시는가 본데……

○곽규택 위원 서구동구 홍보까지 해 주시네.

○장경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 다 그 후에 국회에서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초선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 있지 마시고, 초선도 발언하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많이 발언하시고……

○곽규택 위원 발언 기회도 안 줘요.

○박은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장경태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발언하시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저는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하고요. 만약에 안건이 진행된다면 저는 무기명표결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지금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인선에 관한 것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요.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진행발언하잖아요, 지금!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는 겁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이 아니고요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보고 할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선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의사진행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온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인신공격하듯이 발언을 했을 때는 제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이 일어난 사실이 허위 사실이며, 내란법을 옹호한 행위가 허위 사실입니까?

○곽규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본인이,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혼자서 이 법사위 회의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일어서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곽규택 위원 들어 보고 말씀하세요, 들어 보고!

○위원장 추미애 목소리 낮추세요, 예의도 갖추시고.

○김용민 위원 예의 좀 갖추고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본인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준태 위원 예의는 서로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위원장은 초선이라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지금 말을 들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들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시장에 있는 장삼이사도 곽규택 위원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나경원 위원 발언 중에 그렇게 발언에 끼어드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이게 무슨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지원 위원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야, 초선’이에요, ‘야, 초선’.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 가지고 자꾸 말을 하시는데 이 역사적인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찬대 의원이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이렇게 회의장에 난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이 빠루를 들고 온 겁니다. 그 빠루를 국민의힘에서 뺏은 거예요. 뺏어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예요, 거짓으로.

○서영교 위원 저 문을 누가 닫은 거예요? 회의장 문을 여러분이 닫은 거예요.

○곽규택 위원 보세요. 박찬대 의원이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처럼 해 가지고 왼손에는 망치,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흔들고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라고.

○김용민 위원 그게 어떻게 박찬대 의원 왼손이에요? 손이 그렇게 길어?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간사 선임을 빙자해 가지고 인신공격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간사 선임안건을 올리셔 가지고 이것 내용을 토론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선이라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6선이신 위원장님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회의장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뺏은 거야. 회의장 문을 열었어야지.

회의장을 폐쇄한 게 여러분이에요, 나경원 대표고.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그냥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됩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 종결도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위원 저 신상발언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세력들과 함께합니까?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칠팔십%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졸졸졸졸 따라다녀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위원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지만 참 안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 하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초선들 시켜 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군 시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 버리고, 다 못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 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 법사위 간사 말고 당대표를 하세요, 당대표를.

- 신동욱 위원** 저는 뉴욕에 오실 때부터 봤어요, 박지원 선배님. 그만하세요, 좀. 그런 말씀을 하시면 후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 서영교 위원**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태 위원님 말처럼 당대표를 시켜 드리세요, 당대표. 당대표 할 때는 못 하게 하고……
- 박지원 위원** 아니, 생각해 봐. 얼마나 억울해!
-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그냥 그만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그만하세요.
- 박지원 위원**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 당하고 이것 해서 뭐 해요?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육 먹이고 있잖아요.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 박지원 위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 박지원 위원** 돌아가셨어요.
-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용민 위원** 예의를 지켜요.
- 곽규택 위원** 예의 좀 지키십시오.
- 신동욱 위원** 예의를 누구한테 지켜요.
- 박균택 위원** 너무 무례합니다.
- 김용민 위원**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진짜?
- 신동욱 위원** 아무리 후배지만 위원님이 이러시면……
- 서영교 위원** 꽈규택 실수했어. 꽈규택 완전히 실수했어.
- 장경태 위원** 고인에게까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요.
- 박지원 위원**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들어요.
- 곽규택 위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 박은정 위원**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 곽규택 위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 박균택 위원** 할 만한 말을 합시다.
- 박은정 위원**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래요?
- 위원장 추미애** 꽈규택 위원님!
- 박은정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 곽규택 위원**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추미애**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장내 소란)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 위원장 추미애** 꽈규택 위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 김용민 위원** 사과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잘못됐습니다.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 김용민 위원** 직업적 관련성이 있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윤리위 제소감입니다.

- 최혁진 위원 뭘 따박따박 얘기해요? 그냥 나가지.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법사위원한테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 최혁진 위원 어디서 소리를 질려!
- 서영교 위원 법원장이라며!
- 김용민 위원 직업적 관련성이 있잖아요!
- 박균택 위원 너무 무례하다!
- 위원장 추미애 여기가 어딘 줄 알니까, 지금?
- 박균택 위원 곽규택, 너무 무례해!
- 곽규택 위원 박균택!
- 송석준 위원 박균택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 박균택 위원 인간이 좀 돼라, 인간 좀!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 박균택 위원 인간이 되라고!
-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 박균택 위원 인간이 되라고!
- 박준태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세요.
- 서영교 위원 남편이 법원장이면 여기 있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야?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 박균택 위원 인간이 돼! 남편 이야기한 것이 인격의 문제는 아닌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 박균택 위원 이것은 적절성의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돼라!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 김용민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 곽규택 위원 왜 사과합니까?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 박균택 위원 사람이 돼!
- 김용민 위원 그것은 직업적 연관성이 있잖아요!
- 곽규택 위원 왜 있어요, 그게?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볼륨 통제 좀 해 주세요, 볼륨 통제.
- 김용민 위원 법사위원 남편이 판사인 것은 연관성이 있지요!
- 박균택 위원 제발 인간이 돼라!
- 곽규택 위원 그게 왜 있어요,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 김용민 위원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고인을 얘기해요, 함부로.
- 곽규택 위원 남편이 와 가지고 법사위원 합니까, 그러면?
- 김용민 위원 왜 고인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그것은 잘못했지요.
-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의 가족을 왜 물어봐요?
- 김용민 위원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고 사과부터 하세요!
- 박균택 위원 네 당에 물어보라고!
- 김용민 위원 그것은 진짜 인간적으로 선을 넘었어요.

(장내 소란)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 위원님들……
-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박균택 위원 좀 사람같이 해!
- 곽규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 박준태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 박균택 위원 사람답게 굴라고!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세요.
- 박균택 위원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네 당에 물어봐, 네가 잘했는지! 네 당에 물어보라고!

- 송석준 위원 자제하세요, 자제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 곽규택 위원 남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 박균택 위원 네 당에 물어봐!
-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발언시간을 신상발언과 같이 해서 좀 발언을……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께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발언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신상발언 플러스 토론까지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 위원장 추미애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해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3분보다 시간을 좀 더 주십사……
- 위원장 추미애 예, 5분 드리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너무 편파적이시라고요.
- 나경원 위원 저는……
- 박지원 위원 발언 다 주잖아.
- 신동욱 위원 왜 주의는 이리로만 주냐고요, 저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 나경원 위원 조금만 중단해 주세요.
- 신동욱 위원 저쪽에서 얼마나 모독을 많이 했습니까?
- 서영교 위원 저렇게 말했으면 주의 주는 거지요.
- 신동욱 위원 그전에 모독 많이 하셨잖아요.
- 서영교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지금?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저희야 법원장인 것을 알고 말한 거지만 모르시고 부인을 말하면 안 되지요.

○**서영교 위원** 남편이 법원장인데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 보니까 그러네?

○**나경원 위원**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가지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섭단체가 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대 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느냐,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시느냐? 주진우 위원을 교섭단체인 우리가 1소위에 배치해 달라는 것도 마음대로 다른 위원으로 바꿔치기합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스스로 나간 것 아니었어?

○**나경원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법사위 1소위 하다 나갔잖아.

○**박지원 위원** 자기들이 발언할 때는 시끄럽게 하고……

○**나경원 위원** 의회민주주의가 뭐니까, 도대체?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발언을 하려면 발언권을 박탈해, 경고해, 퇴장해……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박지원 위원** 잘못하니까 그렇지.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의회독재입니다.

○**박은정 위원** 사과나 하세요.

○**나경원 위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모든 법안은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외피를 쓰고 지금 의회독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은정 위원** 사과나 하시라고요, 사과나.

○**박준태 위원**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제발 경고 좀 시켜 주세요.

○**박준태 위원** 경고 한 번은 주세요. 뭐니까, 이게?

○**박지원 위원** 표결합시다, 표결.

○**나경원 위원** 저는…… 이것은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저 구형 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고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논리라면.

내란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당의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 국민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여기도 투표로 뽑혔잖아요. 왜 자꾸 투표로…… 여기도 선출 권력이에요, 거기만 선출 권력이 아니라.

○**전현희 위원** 간사가 아니지요.

○**박은정 위원** 간사를 국민이 뽑았어요, 간사를?

○**전현희 위원** 대통령을 뽑은 거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끝판이 결국 내란의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란전담재판부니 대법원장 사퇴니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그렇게 좋아하는 선출 권력이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전현희 위원 조심은 위원님이 하세요.

○나경원 위원 결국 민주당은, 저는 이 패스트트랙 기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 놓고 그걸 나빠루니 운운하면서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자유한국당에 뒤집어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한마디로?

○서영교 위원 폭력을 국민의힘이 했지 무슨 민주당이 폭력을 해요?

○박지원 위원 빠루로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이 폭력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그러고서는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23명을.

○전현희 위원 폭력은 국힘이 했지요.

○장경태 위원 본인이 이렇게 딱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다 책임진다고.

○나경원 위원 여러분, 이 패스트트랙 기소로 민주당이 의회독재에 날개를 달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 퇴장을 해라, 이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박은정 위원 마음대로 한 건 윤석열이에요. 마음대로 한 건 윤석열이라고요.

○나경원 위원 6선 의원 하신 추미애 위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1소위 배당하는 거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독재입니다.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장악했다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까?

사법부 장악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재판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라, 대법원장 사퇴해라……

○박은정 위원 내란 무죄인가 봐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된 거 5개 혹시라도 재개될까 봐,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결국 유죄판결 받을까 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 작년에 민주당이 그 무자비한 의회독재를 완성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일당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저희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이러한 사법부 파괴 반드시 막아 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간사로서 협의할 대상을 그리고 민주당과 간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우리 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 왔습니다.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형식적인 이 안건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사과는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의사 들었으니까 표결로 결정합시다.

○**나경원 위원** 이건 표결 건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일단 제가……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신상발언 기회에 나경원 위원께서 저를 향해서 ‘6선 의원이 이런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선후가 있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하지요. 먼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연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위원께서는 신상발언 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실정을 덮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취임 100일이 됐고요. 국민이 ‘일 잘한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주진우 위원** 관세협상이나 똑바로 하세요.

○**신동욱 위원** 법사위원장님이 그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만하세요. 뭘 그렇게 딸랑거려요!

○**박지원 위원** 가만있어!

수석최고위원, 그만 나서라. 그만 나서!

○**신동욱 위원** 아니, 뭘 그만 나세요. 이게 법사위원장이 할 얘기입니까? 국정홍보처예요, 여기가?

○**박지원 위원** 그만해!

○**신동욱 위원** 선배님, 국정홍보처예요, 여기가? 듣다 듣다 너무하네, 진짜.

법사위원장님, 지금 간사 얘기하는데 왜 국정 홍보를 해요.

○**전현희 위원** 예의 좀 지키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무슨 실정을 덮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면이 됐었고 대통령 과면으로 인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뒤를 뒤집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문 부수고 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걸, 제가 6선 하는 동안 그 꼴을 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처럼 그 재판 재개를 두려워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뭘 성실하게 응해요? 그런 거짓말을 법사위원장이……

○**주진우 위원** 온갖 꼼수는 다 부려서 미뤄 놓고 무슨 소리예요.

○**나경원 위원** 송달 안 받고 송달 연기하고……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지켰습니까?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들읍시다! 들읍시다, 좀!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 불소추특권의 해석상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였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 박준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해석이 그게 맞습니까?
- 나경원 위원** 헌법 책 똑바로 읽어 보십시오. 그게 다수설입니까?
-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 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하는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위원** 지금 나경원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위 간사가 못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 나경원 위원** 야당의 인식까지 여당이 지배하려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 장경태 위원**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 김용민 위원** 왜 그러냐? 적어도 오늘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부터 해야지요.
- 신동욱 위원** ‘국민’, ‘국민’ 하지 마세요, 민주당 얘기지.
- 나경원 위원** 야당의 인식까지 여당이 지배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 곽규택 위원** 아니, 의식을 무슨 검열해 가지고 간사를 선임합니까?
- 김용민 위원**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 나경원 위원** 야당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이 여당의 독재입니다. 이제 우리를 입틀막 하려고 합니까?
- 신동욱 위원** 김용민 간사님, ‘국민’, ‘국민’ 하지 마세요. 왜 국민입니까? 그게 민주당 생각이지.
- 곽규택 위원** 간사가 무슨 청문회 하는 자리예요?
- 나경원 위원** 이렇게 입틀막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입틀막이지!
- 김용민 위원** 그리고 과거 관행 얘기하시고 과거에 표결을 한 적이 없었다 말씀하시는 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 박준태 위원**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기 안 좋게? 그만하세요.
-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 김용민 위원** 좋은데, 내란이 저질러졌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있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과 같습니까, 과거가?
- 신동욱 위원** 할 말 없으면 ‘내란’, ‘내란’! 그만 좀 하라고요, 좀!
- 나경원 위원** 아니, 그거는 법원에서 재판하라 그러십시오! 법원에 가서 재판하라 그러십시오!
- 곽규택 위원** 간사 선임하는데 내란 얘기가 왜 나와요, 또!
- 신동욱 위원** 할 말 없으면 ‘내란’, ‘내란’!
- 김용민 위원** 내란 얘기 지겨우시지요? 저희는 죽다 살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박준태 위원** 뭘 죽다 살아요?

○**신동욱 위원** 뭘 죽다 살아 나와요? 언제 죽다 살아 나왔어요? 어디서 죽다 살아 나왔냐고!

○**김용민 위원** 아무리 지겨워도, 귀에 딱지가 붙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장경태 위원** 국민을 살해하려고 했던 내란이지요, 국민 살해 목적!

○**김용민 위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신동욱 위원** 계속 안 들을 테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 법원에서 재판하게 두세요.

○**김용민 위원** 내란의 강을 좀 건너가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신동욱 위원** 누가 죽다 살아났냐고!

○**나경원 위원**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기다리세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쭉 들어 보니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나경원 위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표결 처리하려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서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시는군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군요. 이건 민주당의 국회가 아닙니다. 의회독재의 역사를 또 쓰고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곽규택 위원** 간사하고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 간사까지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하겠다?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군요.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간사 호선은 적어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지요!

○**나경원 위원** 우리 반 반장을 정하는데 왜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 **김용민 위원**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 뽑는 거예요. ‘반장’, ‘반장’ 얘기하지 마세요.
- **나경원 위원** 국회입니까, 이게!
- **곽규택 위원**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잖아요.
-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 **장경태 위원** 저희가 추천한 건 아니니까 부결시킬 수 있지요, 저희가. 거부권이 있어야지요.
- **나경원 위원**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 **박준태 위원** 그건 안 뽑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예, 말이 됩니다.
- **장경태 위원** 다른 분을 추천해 주세요, 다른 분.
- **나경원 위원**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 **곽규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 **나경원 위원** 국회 독재화하고 그리고……
- **장경태 위원**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의결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남편이 법원장이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님하고 저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주셨어요.
- **김용민 위원** 이제 표결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더 들을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 **박준태 위원** 발언 기회 안 주세요?
- **나경원 위원** 양심이 있어 보세요, 양심이.
- **서영교 위원** 아니, 남편이 법원장이면 여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최혁진 위원** 안 맞습니다.
- **나경원 위원** 양심이 있어 보세요, 양심이.
- **박준태 위원**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 **서영교 위원** 안 맞지. 안 와야지. 그 안에 절대 배치하면 안 되지. 나는 깜짝 놀랐네.
- **박준태 위원** 그러면 남편이 변호사면, 아들딸이 변호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 **장경태 위원**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인데 어떻게……
- **곽규택 위원**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아들딸은 뭐 하세요?
- **서영교 위원** 아니, 남편이 법원장이면 여기 국감 현장에 있는 거 아니야?
- **주진우 위원** 남편이 변호사면 더 안 되지요.
- **곽규택 위원** 아들딸은 그러면 뭐 하시냐고요!
- **나경원 위원**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이.
- **곽규택 위원** 아들딸은 뭐 하세요, 지금!

- 박은정 위원**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사과하세요!
- 서영교 위원** 아니, 맞아, 안 맞아?
- 곽규택 위원, 들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곽규택 위원** 아들딸은 뭐 하세요, 그러면!
- 나경원 위원** 양심이 있으세요.
- 장경태 위원** 변호사는, 법조인은 직업이지.
- 서영교 위원** 법원장인 사람이 남편인데 맞아요, 여기가?
- 곽규택 위원** 아들딸은 뭐 하세요, 서영교 위원님은?
- 서영교 위원** 내 아들딸이 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 곽규택 위원** 봐요. 말 못 하시잖아요!
- 박균택 위원** 그 딸은 여기 와서 국감을 안 받잖아요. 다른 건데 왜 그래요, 자꾸.
- 장경태 위원** 직업인 거하고 공직에 있는 거하고 다르지요. 변호사는 직업이지 뭐.
- 김기표 위원** 피감기관이니까 부적절합니다.
- 서영교 위원** 맞아요. 피감기관이니까 부적절하지. 말이 돼요?
- 박균택 위원** 딸이 여기 와서 국감 받는 게 아닌데.
- 장경태 위원** 피감기관이잖아요, 피감기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쿵작쿵작하려고 또 그냥.....
- 김기표 위원** 이해충돌입니다. 국회의 이해충돌입니다.
- 서영교 위원**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 곽규택 위원!
- 곽규택 위원** 피감기관한테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까?
- 김기표 위원** 그건 다른 얘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 서영교 위원** 피감기관한테 맞아요, 이게?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뭐 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 장경태 위원** 친인척을 감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족을 어떻게 감사를 해. 감사가 되겠어요, 그게? 가족을 감사할 수 있어요?
- 송석준 위원** 공부를 여기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하시고 오셔야지. 정청래 위원장은 미리 공부하고 오더구먼!
- 김용민 위원** 의사 방해 발언 좀 그만하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 장경태 위원** 가족을 어떻게 감사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공부하실 동안에.
- 박은정 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 서영교 위원** 너무 명백하네, 그거는. 다른 거 다 문제가 있지만.
- 장경태 위원** 아니, 가족을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 박은정 위원** 송석준 위원님, 사과나 하세요, 저한테 천박하다고 하셨는데.
- 서영교 위원** 송석준, 사과해!
- 송석준 위원** 대변인이에요?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박은정 위원 어느 지점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 전현희 위원 사과하세요.
- 박은정 위원 조회대한테 머리 조아린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사과하세요.
- 전현희 위원 송석준 위원님 사과하세요.
- 김용민 위원 사퇴하세요, 사퇴.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 나경원 위원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의회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 전현희 위원 ‘의회독재’ 하지 마십시오.
- 장경태 위원 개별 위원들의 의사 표시를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중단해 주십시오.
- 장경태 위원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나경원 위원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가세요. 헌법재판소까지 가 봐요.
- 나경원 위원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지요. 민주당은 다 마음대로 합니다. 민주당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 박지원 위원 그래도 나빠루는 안 돼.
- 박은정 위원 빠루 재판이나 심판받으세요. 누가 누구한테 심판을 한대?
- 장경태 위원 아니, 그냥 당대표를 나가시지 왜 자꾸 간사를 나오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진짜?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왜 간사로 와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 곽규택 위원 그런데 정당에서 간사 추천 가지고 왜 간섭을 하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이해충돌도 있는데 왜 간사로 와서 그러시는 거야?
- 나경원 위원 왜 의회독재를 실현하려고 그립니까! 그 부분만 기피하면 돼요.
- 박준태 위원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나경원 위원님 뭘 잘못했다고 자꾸 올 때마다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해요.
- 박은정 위원 잘못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 송석준 위원 하도 불공정하게 운영하시니까 마이크까지 죽었잖아요, 마이크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요, 헌정질서를!
- 우리 일어납시다. 여기 더 앉아 있을 이유 있어요?
- 박준태 위원 마이크가 왜 안 돼요? 엉뚱하게 진행하니까 마이크도 말을 안 듣는구먼.
- 장경태 위원 지지자들이 뭐라고 안 해요, 상습 퇴장한다고? 오히려 답답하다고 그러시던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한테 하소연해요, 퇴장 좀 그만하라고 전해 달라고.
- 김용민 위원 투표하고 가세요, 투표하고.
- 박은정 위원 세비를 일도 안 하고 받으세요?
-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의사진행을 하고 이렇게 법사위 운영을 하니까 마이크까

지 고장 나잖아요.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을 표결하는 것은 국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독재입니다.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하면 저희는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헌법기관의 표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교섭단체가 추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요식행위입니다.

○최혁진 위원 국민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표결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나경원 위원 요식행위인데 이것을 갖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인격모독을 하고 면책특권하에서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독재를 완성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무시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간사 선임을 호선으로 해야지 표결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박은정 위원 사과나 하세요. 나경원 위원님, 사과하시라고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치 역사에 한 번 더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박은정 위원 ‘초선의원’ 발언 사과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정치 역사에 한 번 더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장경태 위원 사과를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박은정 위원 왜 말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하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멈춰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잘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표결하시는 거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번 더 기록하시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멈춰 주십시오. 이거는 의회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장경태 위원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의사이므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은 그날 계엄 해제 의결하는 날 본회의 안에 계셨지요?

○신동욱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동안 내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왜 한 번도 안 됐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역사에 남습니다. 저하고 말싸움하시려고 위원장 오신 거예요? 저 인신공격하려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앉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왜 저희한테만 계속 이러시는 겁니까? 저쪽에다 단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위원장을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서영교 위원 똑바로 해야지.

- 김용민 위원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지요. 맞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 신동욱 위원 간사를 가지고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 서영교 위원 아니, 왜 간사를 한다고 그래.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못 하게 해요!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하세요, 그냥.
- 서영교 위원 가서 당대표 시키세요, 당대표.
- 곽규택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당에서 정하는 거예요!
- 신동욱 위원 무슨 문제가 많아요. 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누가 빠루를 들어요?
- 서영교 위원 그게 왜 허위 사실이에요? 자위대 안 갔어요? 빠루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 곽규택 위원 그거를 민주당 위원님 허락받고 합니까?
-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그게! 그게 설명하는 장면이라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 이거는 뺏어 온 거라니까요. 뺏어 온 거라니까, 이게. 여기서 가져온 거 뺏어 온 거라니까.
-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그게 내가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 신동욱 위원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전부 다!
- 박준태 위원 그게 압수한 거예요, 우리가. 문 잡아 뜯고 사람들 밀치고!
- 곽규택 위원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 나경원 위원 우리가 압수한 것을……
- 서영교 위원 내가 정리할게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예요.
- 박준태 위원 박범계 의원님이 보좌진 멱살 잡고! 다 알아요, 우리도!
- 곽규택 위원 빠루를 들고 설명한 거라고요!
- 서영교 위원 그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왜 문을 뜯어 부수냐고요!
- 서영교 위원 왜 문을 막았어요?
- 박준태 위원 왜 문을 부수었어요?
- 서영교 위원 왜 문을 막았어요? 왜 회의를 방해했어요?
- 박준태 위원 박범계 의원님은 왜 보좌진의 멱살을 잡았어요?
- 나경원 위원 회의를 회의장을 옮겨 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 서영교 위원 회의를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그날 진행을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나경원」 하는 위원 있음)
- 나빠루의 지휘하에 방해가 된 거잖아요.
- 나경원 위원 전자접수로 가능한데……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국회 회의가 방해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 그거는 빠루를 들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 서영교 위원 그리고 자위대 갔어요, 안 갔어요? 자위대 갔어요, 안 갔어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시라고요.
- 서영교 위원 자위대 갔어요, 안 갔어요? 자위대 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안 하세요?
- 나경원 위원** 거기에 내가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어. 참석 안 했어요.
-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를 겪었어요. 그런데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 곽규택 위원** 이럴 때는 정회라도 선언하세요, 좀.
- 나경원 위원** 참석 안 했어요. 참석 안 하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참석 안 했잖아요.
- 서영교 위원**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 곽규택 위원** 정회 좀 하세요, 정회 좀. 지금 마이크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정회.
- 서영교 위원**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 나경원 위원** 참석 안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 서영교 위원** 그리고 윤석열 관저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윤석열 면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님도 할 말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하지 마시라고요.
- 박은정 위원** 아니, 그게 왜 인신공격이야? 인신공격은 제가 받았어요.
-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들어 보시지요.
-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 날 윤석열의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김용민 위원** 위원님, 앗아 계시지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니까……
- 서영교 위원** 아니,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야? 다 사실이구먼.
- 위원장 추미애** 기계 장치가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태 위원** 정회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김용민 위원께서 이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 곽규택 위원** 간사 선임을 무슨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 장경태 위원**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 나경원 위원** 1소위 위원은 마음대로 배치하고 간사도 안 하고 국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국회입니까?
- 박준태 위원** 그게 창피한 겁니다. 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그게 법기술 쓰는 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 곽규택 위원** 누가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선임을 누가 표결합니까?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대안도 없이 항상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자비하게 퇴장만 하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저는 전달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좀!

○위원장 추미애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건은 나경원 위원님을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장경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회의실에 계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감표위원석으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사이에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될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로 이동하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위원님들 중에 박준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다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비교섭단체이신 박은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투표개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소회의실로 가셔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투표함 앞에서 사진을 바로 찍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서요. 투표용지가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추미애** 지금 촬영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투표용지가 찍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좀 비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인)

성명	직업	사유	비고
변민선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총경	관봉권 떠지	추가
노정웅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2계 경정	관봉권 떠지	추가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신의호	검사	관봉권 떠지	철회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양홍석	변호사	검찰 해체의 위헌성, 국민피해, 부작용	추가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장경태 전현희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첨가 위원(1인)**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